

황세형·정훈·양원용 목사, 통합 제109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장로부총회장은 박주는 장로 자진 사퇴로
서울서북노회 윤한진 장로 단독 입후보

제10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 이하 예장통합) 부총회장 후보 등록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한규, 총회 선관위) 주관으로 22일 오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호 추첨까지 함께 열린 후보 등록에서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기호 1번 황세형 목사(전북노회, 전주시온성교회), 기호 2번 정훈 목사(여수노회, 여천교회), 기호 3번 양원용 목사(전남노회, 광주남문교회)가 등록됐다.

됐던 예비 후보 박주는 장로(서울동노회, 성덕교회)가 이날 자진 사퇴를 선언하면서 윤한진 장로(서울서북노회, 한소망교회)가 단독 입후보했다. 이날 목사·장로 부총회장 후보자들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해 총회 선관위에 제출했다.

총회 선관위 위원장 박한규 목사는 “어느 후보 진영에서 이익을 달지 않음 공명정대하게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총회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제109회 총회 목사·장로 부총회장 후보자들. (맨 왼쪽부터)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 황세형 목사(전북노회, 전주시온성교회)·양원용 목사(전남노회, 광주남문교회)·정훈 목사(여수노회, 여천교회), 장로 부총회장 후보 윤한진 장로(서울서북노회, 한소망교회) ©노형구 기자

앞서 총회 선관위는 ‘총회 부총회장 선 포상’ 제도를 총회 규칙부 해석과 총회 임의회 허락에 따라 시행체적으로 신설하

고 실행하기로 했다. 총회 선관위는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 신고된 금품 수수 사건에 조사를 거쳐 최종 확인되는 경우 신고된 금품 수수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최초 신고자에 포상할 예정이다.

또 총회 선관위는 오는 8월 6일까지 각 후보 캠프로부터 선거운동원 10명을 등록받을 계획이다. 선거운동원들은 선관위가 제공한 ‘패찰’을 착용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날 이후 총회 공식 행사에서 선거운동원 시 후보자를 제외하고 도열은 선거운동원 2명, 후보자 수행은 선거운동원 4명까지 가능하다.

총회 선관위 서기 김진욱 목사는 “특히 금품수수 관련 각 후보자 캠프에서 철저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러달라”며 “교단을 지켜야 한다. 피차간에 깨끗하게

선거하자”고 했다. 이어 “현재 총회는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각 후보자들은 당선에 집중하기 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 교단을 세우고 품격을 지켜 후보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후보 등록을 하기로 예정됐던 박주는 장로 부총회장 예비 후보는 자진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장로는 “현재 총회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교단이 힘들어지면서 선배 장로 부총회장 등 총회를 위한 충실 어린 조언을 듣고, 교단을 다시 세우는 일에 일조하고자 장로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했다. 또 오는 9월 총회 임원 선거에서 가수 투표 대신 진행될 리모컨 투표를 시연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노형구 기자

“영화 ‘K-A 가디언즈’, 한미동맹 가치 재확인하는 계기될 것”

22일 은평제일교회에서
시사회 개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스림 일깨우는 다큐멘터리 영화 ‘K-A 가디언즈’의 시사회가 목회자들을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서울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 영화는 심하보 목사가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기획제작한 것이다. 심 목사는 여전히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이 될 경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심 목사는 “1949년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자, 1년 뒤 북한은 6.25를 일으켰다”고 했다.

‘K-A 가디언즈’는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이 수호자, 곧 ‘가디언즈(Guardians)’임을 웅변하며 감사함을 전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특별히 미국과 함께 이룬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 영화 제목의 K와 A는 각각 대한민국(Korea)과 미국(America)을 의미한다.



‘K-A 가디언즈’ 시사회에는 목회자들을 비롯해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특별히 올리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상호방위방위조약의 발효 7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다큐 영화는 대한민국 번영의 울타리가 되어준 한미동맹의 바탕에 미군의 희생이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6.25 당시 이름조차 생소했던 극동의 작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 젊은 이들의 인류에 대한 박애와 휴머니즘을 강조한다. 6.25 때 참전했던 유엔군 약 195만 명 중 미군은 178만 명으로 90%가 넘는다. 유엔군 전사자 약 3만 8천명 중에서도 3만 4천 명이 미군이었다. 영화는 6.25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자료와 참전용사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참전용사 윌리엄 웨버 대령의 생전 모습을 비롯해故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백선엽장군기념재단 명예 이사장 등의 생생한 인터뷰를 이 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시사회에서 인사말을 전한 심하보 목사는 “코로나에 감염돼 위독했던 적이 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6.25 당시 우리나라도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기적적으로 반격이 나왔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이 영화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자료로 활용되길 좋겠다”고 전했다.

영화를 연출한 김채영 감독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에 앞서 평화 무드가 조성되길 했으며, 우리가 소중한 자

유를 지키기 위해 항상 ‘위장 평화’를 경계해야 함을 역설했다. 김 감독은 “역사는 반복된다.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며 “‘K-A 가디언즈’를 통해 문화전쟁에 더욱 열심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시사회에 축사를 보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K-A 가디언즈’는 6.25 전쟁을 되돌아보는 걸 넘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값진 의미를 되새기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영화의 흥행을 기원하고, 또한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데 이 영화가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축사를 보냈다. 이 지사는 “6.25 전쟁 참전 미군들의 희생과 박애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감동의 다큐 영화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있게 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건 당연하다. 자유와 평화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불굴의 의지와 헌신으로 몸바치신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을 함께 기리자”고 했다.

한편, 이날 ‘K-A 가디언즈’ 시사회에는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 순명원 회장을 비롯해故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백선엽장군기념재단 명예이사장, 임영문 목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황우여,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판결에 신중론 제기

“헌법 해석과 입법 논의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강조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는 판결의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 헌법에는 혼인인 양 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선언,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양성평등은 이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동성혼인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판결의 범위가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황 위원장은 이번 판결의 파급 효과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반대 의견을 인용하며, “동성관계는 혼인관계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다”고 했다. “이성 간의 결합과 동성 간 결합을 동일시하는 배우자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이 문제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앞으로 헌법 해석과 충분한 입법상 논의를 거쳐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치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열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입법과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안전하지 않았을까”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당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만큼 존중해야 하는데, 그 진정한 의미와 대비는 사회적으로 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언은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 A씨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나래 기자

일본 高地 가미코치
이국적인 힐링 산책 4일
[출발 확정] 일요일 출발 7월 28일, 8월 4일, 18일

전문 인솔자가 함께하는 편안한 여행 | 상품가 2,090,000원부터~

- 8월 평균 최고 기온 23도, 도쿄보다 약 10도 낮고, 삿포로시보다도 낮은 시원한 여행!
- 대한항공 왕복 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 온천 호텔 3박(2인 1실) / 조식, 중식, 석식 제공
-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전용 차량, 가이드 경비 포함
- 하쿠산 화이트로드, 합장촌, 히다 대동유동, 가미코치, 노리쿠라 이지 트레일 등 관광
- 노리쿠라다케 자연 속 하이라유 노천 온천, 시바야마 호수 전망 실외/내 온천 체험

몽골	대자연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힐링 여행 몽골·바이칼로 떠나는 심 여행 / 7일 4,490,000원
베트남	미리 준비하는 추석 연휴 차별화된 베트남 여행 하롱베이 럭셔리 크루즈 / 5일 2,490,000원
유럽	와인과 예술, 차별화된 일정과 감동의 향연 보르도와 남프랑스 낭만 여행 / 10일 8,990,000원
네덜·부탄	천상의 왕국을 찾아 떠나는 미지의 땅 자연에서의 힐링 네덜, 부탄 / 9일 6,990,000원

* 본 상품은 실시간 항공요금 기준으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 상황에 따라 스케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헬스조선 비타투어 여행문의 | 1544-1984 www.vitatour.co.kr